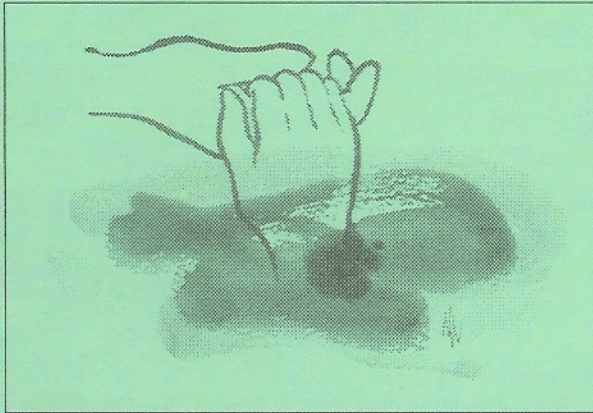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5주일
제29권 11호(나해) 2009 · 2 · 8

[묵상]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마르 1,38)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사는 세상을 거슬러
엮히고 설켜 있는 고통과 악(惡)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악(惡)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종류의 실체다.
어디서부터 유출되어 우리 삶을 아프게 하는가?
전능하신 하느님은 창조의 순간에
피조물 전체를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렇다면 고통과 악(惡)은 창조 이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사람이 지은 죄에 책임을 돌리기엔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억울하고
그저 삶의 일부분으로 보기엔
이를 극복하려는 열성이 있어 너무 무책임하다.
악(惡)은 선(善)의 결핍이라는 정의가 옳은 듯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그 시원한 해답이 보이질 않는다.
마지막 한 가닥, 실마리는 오직 그분 안에 있다.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
그분이 내미는 손 안에 그 해답이 있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엄은섭 도로테오
특전 미사	(생) 방수영 치릴로, 박민환 미카엘, 조지 가보라, 박상대 마르코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 김옥순 엘리사벳, 안춘자, 김인영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생) 조혜정 헬레나, 이종민 요셉, 김시형 시릴로, 이종민 베드로,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오진 베드로와 신재 메히틸다 가정, 송정현 울리안나와 베드로 가정, 오상현 스티븐, 장영우 엘리사벳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욥기(Job) 7,1-4.6-7
화답송	◎야훼님 찬양하라. 부서진 마음들을 낮게 하시도다. <전례성가 77, 연중 제5주일 나해> ◎야훼님 찬양하라, 노래도 좋을시고. 하느님 노래하라, 찬미도 고을시고. 주께서 예루살렘 이룩하시다. 흠어졌던 이스라엘 모아주시다.◎ ◎부서진 마음들을 낮게 하시고, 그 상처 동여서 매어주시다. 별들의 수효를 세어두시고, 저마다의 이름을 부르시도다.◎ ◎크오셔라 우리 주님 그 힘은 능하시고, 그 지혜로우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주께서는 낮은자를 들어올려 주시고, 악한자는 땅에까지 낮추시도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9,16-19.22-2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복 음	마르코(Mark) 1,29-39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주님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182
봉헌	409	264,197
성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291,299
파견	394	184

23. 인간 생명의 존엄성

▶ 자연과 환경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에 종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연환경을 주시려는 하느님의 배려였다.

☞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데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 2,15)

따라서 인간 생명은 자연환경과의 합당한 조화와 어울림 속에서 잘 유지될 수 있다.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명도 위협받게 된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살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지만, 그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온실 효과, 산성비, 토양 부식, 해양 자원의 고갈, 물과 공기의 오염, 이상 기후 등은 자연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기아와 전쟁, 온갖 종류의 폭력과 반인권적인 사회제도 역시 생명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더욱이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 자체뿐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지구 전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자연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 따라서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일 또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더 없이 크고 중요한 의무요 권리다.

▶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정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존중할 줄 알고, 자연을 사랑하며, 언제나 인간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현재 닦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과 악의 요소까지도 찾아내어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부모는 가정 안에서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녀들이 생명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임신[受精]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존귀하다. 인간은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 분과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창세 1,27)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생명을 훼손하지 말고 잘 간수하는 것이 자녀 된 우리의 도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정과 세상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낙태, 안락사, 자살, 살인, 사형 등 직접적인 생명 파괴 행위는 물론이며 장기 매매나 인간의 몸을 비윤리적인 목적이나 방법으로 실험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거룩하신 뜻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CBCK 제공 - 계속)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이 회당에서 가정을 거쳐 넓은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정 안에서 ‘장모’님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듯싶다. 설 전에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박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장모님은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중을 드신 분이셨습니다. 좋은 유교적 집안의 맏며느리는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한다(奉祭祀接賓客)는 전통을 이어가는 분이죠. 종가(宗家)댁의 맏며느리로서 사위, 자식, 친척, 손님들 각자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여 마음 편안히 머무르도록 늘 배려해 주신 분이셔서 이분의 빈자리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으로 사경(死境)을 헤매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31절).

그러자 부인은 예수님의 시중을 드셨다(마태 8,15).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34절), 마치 장모님이 사랑하는 사위와 가족 친지들을 시중들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다! 안식일 저녁에도 밤늦도록 끊임없이 밀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짜증한 번 내지 않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고쳐주신다. 어떻게 예수님은 갖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아주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지니실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35절).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맑은 정신과 기운으로 당신을 채

우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늘 하느님 아버지(聖父)의 심오한 지혜와 권능, 자비심(慈悲心)으로 자신을 채우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神性)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골로 2,9-10).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깊은 일치를 이루시기에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신다(루카 11,20; 17,20-21).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활동, 관상과 선교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된다. “내 말을 믿어 주십시오. 마르타와 마리아는 나란히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잘 모시고 항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기도하시던 외딴곳에서 갑자기 ‘온 갈릴래아’로 예수님의 활동무대가 바뀌고, 이분께서는 무척이나 서두르시고 바빠지셨다(38절).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 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하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지 않았던가? 초기 조선 천주교회를 창립하신 신앙의 선조들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일념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았을까?

“… 계묘, 갑진년간부터 연소배 중에서 재기 있는 자들이 천학이라는 학설을 가르쳐 인도하였는데, 마치 상제가 친히 내려와서 사명을 띤 사람에게 가르쳐 알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 (安鼎福, 順菴集 「, …自 癸卯甲辰年間 少輩之有才氣者 唱爲天學之說 有若上帝親降 而詔使者然…」)”

◆구요비 읍 신부 | 가톨릭대 성신교정 영성지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대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대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재의 수요일

사순절

2월 25일(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뉘드린 성지 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 가지를 2월 22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본당신부님 북미주사제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출장

- 일정 : 2월9일(월)~12일(목)까지 애리조나 피닉스
- 수/목 저녁미사는 최광정 신부님(가톨릭신문사 사장)께서 집전해드립니다.(목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수도원 건립을 위한 모금 방문

- 일시 : 2월14일 토요일전미사와 15일 주일미사
- 장소 : 성삼성교회, 뉴멕시코 보스퀘 소재
- 김보경 예수 마리아 알로이시오 수녀
- 신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견진성사 신청 접수 중

- 오는 4월26일(주일)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배드로 위원장 ☎694-4585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2009년 올해는 본당의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의

해입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양업회 Vs 대전회 족구시합

- 일시 : 오늘 주일(8일) 오후1시30분 축구장
- 간단한 음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자 교육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참가비 : \$60(2박3일 숙식비 포함)
- 문의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 배론 청년회 사순피정

- 일시 : 3월13일(금)~3월15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 주제 :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 신청 : 현재 접수 중(3월8일까지)
- ☎ : 최태훈 아오스당 청년회장 (310)508-2123

◆ LA 대교구 사목지침에 따른 성체성혈 분배자 정기교육

- 일시 : 3월29(주일) 오후 1시
- 장소 : 본당 성전
- 교육대상 : 전례부원, 성체성혈 분배봉사자(환자방문 봉성체 포함), 독서자, 복사
- 교육이수자 : LA대교구 발행 Certificate을 받게됩니다.
- 문의 : 전례연구위원장 김정웅 요한 ☎(310)720-8240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8일(주일) : 토런스 서1반(육개장 \$3)
- 2월15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광자	김대우	김선제	김원모	김태호
	김현숙	김형순	남명자	노승애	노혜숙	민기남
	민봉식	박재철	박정희	박준구	박희자	방세훈
	방정복	배태임	변복순	성낙호	신대식	신대철
	안재만	엄세중	엄지선	오세원	오일순	오태환
	유영희	육재민	이강우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연행	이영숙	이은록	이호미	장숙환	장영우
	장정진	정상문	정지숙	조소영	조영희	조윤영
	조화숙	주대중	지경수	차명용	최금옥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4,340
미사헌금 : \$2,949						
2차헌금 : \$1,445						

성전헌금	김광자	김대우	김선제	김원모	김현숙	김형순
	남명자	노혜숙	민기남	민봉식	박재철	박정희
	박준구	박희자	방세훈	변복순	성낙호	신대철
	안재만	오세원	오일순	오태환	유영희	육재민
	이근모	이명자	이영숙	이은록	이호미	장숙환
	장영우	장정진	정상문	정지숙	조영희	조윤영
	조화숙	주대중	지경수	차명용	영희가보라	
						합계 : \$3,330

감사헌금 : 배태임 배기엽 한길선례 김대우 대전회 토런스 동구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사순피정 신청

- 주제 : Heaven on Earth
- 일시 : 3월13일(금)~15일(주일), 금요일 오후4시 성당 출발, 일요일 오후 5시30분 도착예정
- 장소 : 테미칼라 꽃동네 피정센터
- 참가비 : \$40(3월2일 이후 \$50)
- 대상 : 7학년~12학년(선착순 40명)
- 준비물: Bible, Rosary, Sleeping bag, Pillow, Towels, Toiletries, Extra shoes, Warm jacket, 주일미사 현금
- 신청 : 3월8일(주일)까지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문의 : 강 아네스 ☎(310)780-0369

◆ 견진성사

- 대상 : 10~12학년
- 리허설: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5월 14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일시: 5월15일(금) 오후 7시
(견진대상자와 대부분은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St. Margaret Mary Church
- 신청 : 3월29일(주일)까지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신청비 : \$10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첫째 자녀 \$150, 둘째 \$140, 셋째 \$130, 넷째 자녀는 무료입니다.
- 등록 장소 : 한국학교 교사실
- 2009년 SAT II 준비반 모집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310)347-8765

남가주 소식

◆ 청장년을 위한 프란치스칸 재속회 재속생활 피정

- 일시 : 2월13일(금)~15일(주일)
- 장소 : Serra 피정의 집(말리부)
- 대상 : 20~30대 후반 청장년
- 참가비 : \$170 *주최 : MGMA(청장년재속프란치스칸회)
- 신청 및 문의 : 윤성민 도미니코 ☎(714)457-9571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새회원 모집

- 지도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신청 : 김원실 메리디나 회장 ☎(714)329-0764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톨라스티카 218-7824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김대우 비오 378-8763 2/14(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윤바오로 & 실비아 540-6925 2/21(토) 오후 6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에스텔 343-3273 2/10(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20(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박마르시아 325-6982 2/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정하상바오로 & 율리아 768-1488 2/6(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13(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2/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2/5(목)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김은 안나 541-5429 2/6(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금영도 베드로 541-4760 2/13(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한애경 율리아나 541-5370 2/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 코린토 2서 / 코린토 교회에 대한 바오로의 각별한 애정

코린토 1서는 아직 어린 코린토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바오로 사도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코린토 2서 역시 코린토 교회에 대한 바오로의 염려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 면모를 다른 어느 편지에서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코린토 2서의 특징이다. 자신이 사도로서 겪은 슬한 고난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시와 자신이 받은 계시 등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받은 모함에 대해 항변하고 사도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 집필 배경과 시기

에페소에서 코린토 1서를 보낸 다음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의 이후 소식이 무척 궁금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 사정은 바오로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 같다. 오히려 바오로가 교활한 수를 써서 코린토 신자들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는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다.(2코린 12,16 참조) 거짓 사도들이 코린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는 바오로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간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코린 11장 참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바오로는 코린토를 직접 방문했지 만 사태는 이미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있었고 바오로는 슬픔만 안고 돌아온다. 그래서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2코린 2,4) 코린토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눈물의 편지’라고만 알려진 이 편지는 티토를 통해 코린토에 전달되었을 것인데, 코린토 교회의 절박한 상황을 아파하는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담겼을 것이다.(2코린 2,4) 이 편지를 쓴 후에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트로아스를 거쳐 마케도니아로 건너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티토를 만나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는 크게 위로를 받는다.(2코린 7장 참조) 그리고는 다시 코린토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 편지가 바로 코린토 2서이다. 학자들은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코린토 2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 집필 시기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지내던 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린토 1서를 집필한 55년 이후부터 57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코린토 2서는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바오로가 여러 번에 걸쳐 쓴 편지들을 나중에 하나로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 주요 내용과 특징

코린토 2서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바오로와 코린토 신자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1,12-7,16)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관한 부분(8,1-9,15), 그리고 반대자들을 꾸짖으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는 부분(10,1-13,10)이다. 바오로는 머리말과 인사에 이어, 코린토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코린토를 방문했을 때에 자신을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슬프게 할까 해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단다.(2,1-4) 이 때문에 바오로는 변덕스럽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1, 17 이하 참조) 바오로는 이어 사도직에 대한 소신을 다소 길게 밝히면서 코린토 신자들이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라는 데 대한 기쁨을 표시한다.(2,14-7,16)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새 계약의 일꾼이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는 보물이다. 바오로는 또 자신을 비롯해 사도들이 수행하는 직분은 화해의 봉사직분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해 몸을 바치셨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도가 수행하는 직분 역시 화해의 봉사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오로는 자신과 화해하고 싶어 하는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코린토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코린토 1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이 모금 활동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협조를 당부한다.(8-9장) 이어 바오로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거듭 책망하고 그들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면서 코린토 교회에 대한 염려를 표현한다.(10-12장) 코린토 2서는 코린토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와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한다.(13장) 이렇게 코린토 2서는 사도직에 관한 서간이라고 할 정도로 바오로는 서간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신상에 대하여 언급한다. 자신이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것(2,17-24), 자신이 사도로서 겪은 슬한 고난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시와 자신이 받은 계시 등을 ‘어리석은 자랑거리’를 늘어놓듯 털어놓으며 자신이 받은 모함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사도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한다.(2,17-24; 11,16-12,21)

[◆평화신문 / 이창훈 기자]